

데스크 시각

문화전당, 지역에 뿌리내리려먼



윤 영 기 문화미디어부장

아는 사람 중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인문학 프로그램의 팬이 된 이가 있다. 어제 문화전당에서 열린 ‘산해경(山海經·중국 풍물·지리, 신화집)과 놀기, 그리고 신화의 귀환’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도 그가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였다. 평소 판타지와 신화에 관심 많았던 그는 “국내 신화·설화 전문가들의 강연을 광주에서도 들을 수 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문화전당에서는 개관 이후 색다른 주제·형식의 인문학 강좌와 학술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서서히 팬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예술·과학 융합 콘서트 ‘빛, 색즉시공(色卽是空)’을 비롯해서 주한인도 대사관과 공동 개최한 ‘2015 인도문화제’,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강좌 등은 크게 주목을 받은 행사였다. 마에스트

로 성시연이 이끄는 경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출연된 문화전당 제야음악회는 입장권이 전석 매진되기도 했다.

문화전당이 광주에 있기에 광주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호사’를 만끽하고 있다. 같은 문화권이면서도 여전히 낯선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사회·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산해경을 읽는 즐거움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서고 있는 문화전당은 그러나, 지역 문화·예술계로부터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계의 한 전문가는 “문화전당이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이나 로컬 아티스트 육성책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광주비엔날레가 성장과정에서 지역과 소통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미술인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문화전당의 지지 기반이 되어 할 예술계와 긴밀한 관계 설정이 없다면 그만큼 문화전당의 성공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문화전당이 그간 추진했던 사업에서도

이런 지적의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문화전당 예술극장은 지역 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아트웨이 숲’의 ‘소리의 숲’, ‘검은 밤’의 ‘비’는 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우산이 있지’ 등 두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이들 작품은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발표 기회와 무대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2차 공모 사업이 진행됐지만 결과 발표가 이뤄지는 등 사업이 잠정 중단돼 있다는 점이다.

문화전당이 지난해 추진했던 ‘아시아 스토리 커뮤니티 구축 사업’도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전국에서 5명의 작가가 공모를 거쳐 참여했으나 광주·전남 작가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역 예술가에게 폐쇄적

이 사업은 우즈베키스탄과 광주를 오가면서 중앙아시아에 널리 알려진 민담이나 설화·동화 등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어린이문화원은 지난해 개관 당시 지역 공연단체의 창작설정이 없다면 그만큼 문화전당의 성공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문화전당이 그간 추진했던 사업에서도

작하는 단계에까지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역 예술계에서는 ‘문화전당이 폐쇄적’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예술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길이 없지는 않다. 그것은 우선 문화전당이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지난해 문화전당이 시행했던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국제행사’와 유사한 국제 교류·창작 프로그램에 광주 작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문화전당 5개원은 사실 이 같은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작가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전당이 지역 예술계에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면 응답해야 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책무다. 그 문호가 크든 작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민 손을 뿌리쳐서는 곤란하다.

전문가들은 문화전당이 예술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예술가와 대학들을 연계해 예술 기획자와 예술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문화전당은 이제 첫 걸음을 뒀을 상태다. 그 보폭을 넓혀야 하는 병신년에 문화전당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은편칼럼



심 명 섭 전남대 행정학 박사

작심삼일(作心三日) 없는 1년

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월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와 낮과 밤은 언제나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흘러간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아 출발의 시점에서 각자의 새로운 각오와 대망의 의지로 후회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학창시절 교양한문 시간에 명심보감을 배우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외은 적이 있다. 일생지계는 재어유(一生之計在於幼)하고, 일년지계는 재어춘(一年之計在於春)하고, 일일지계는 재어신(一日之計在於晝)하느니라라는 글이다.

뜻을 풀이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어린 유년 시절에 세우고, 일년의 계획은 씨앗을 뿌리는 봄에 세우며, 하루의 계획은 동이 뜨는 새벽에 세운다는 뜻이다. 혹자는 이렇게도 해석한다. 어려서 공부를 게을리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아는 것이 없어 남에게 무시당하기 쉽고, 춘삼월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거둬 곡

식이 없어 먹지 못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듯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알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누구나 일년 동안 실행할 나름대로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초에 세웠던 부푼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현실의 길목에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고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냉혹한 현실에서 속세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에서 생존경쟁으로 인생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질 자산이다. 그 자산을 잘 이용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돌아가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쉬움이 남겨지기 마련이다. 영국 속담에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것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흘러가는 세월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기에 더하여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여유 즉 삼유가 있어야 한다

고 했다. 참 이슬배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생은 노년여 여유로워야 한다고 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것이 바로 여유를 즐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 역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학의 심장이자 불리는 대학도서관에서 책과 더불어 살아왔다. 물론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이 주된 임무였으나 그 많은 책의 주옥같은 내용을 훑어보는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책의 제목을 보는 여유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시간들이었다.

지금은 새해를 맞는 정초라 해돋이를 찬미하며 사람들이 희망에 차있다. 그런 단 새해의 기대와 다짐도 음력설이 될 때쯤이면 차츰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내년 초 세운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빌어본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1인가구를 위한 도시공간 시급하다



이 세 규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경제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겪은 선진국에서는 최근 사회적 고립감의 증가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브리그햄영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모든 연령대에서 조기사망 위험을 높이고 우울감, 가정해체, 이혼, 범죄, 자살, 고독사 등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도시계획분야에서도 1980년대부터 사회적 고립감과 관련된 연구들이 시작됐지만, 같은 시기에 도심지역에서 보행자와 대중교통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운동(뉴어바니즘)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연구보다 보행 환경의 공급이라는 측면으로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2011년 일본에서 도시노인 9,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감의 개선은 좋은 보행환경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형

성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에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사회적 고립감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은 특히 사회적 접촉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활동영역이 주택과 주변지역으로 제한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사회적 소통을 연구하고 있는 미국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는 주택을 제1공간, 직장을 제2공간, 일상적인 만남과 소통이 일어나는 장소를 제3공간으로 나누었다.

제3공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은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술집, 서점 등을 대표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보고 있었다. 이중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3공간은 종교시설이며, 다음은 식

당과 카페, 그리고 여가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에게는 제3공간의 적절한 분위기와 참여프로그램의 유무에 따라 이곳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정되었다.

우리나라 도시의 경우, 편리한 대중교통과 많은 편의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와 노인인구 수요에 대비한 제3공간은 정의 자체도 낯설거나와 공공계획은 더욱 부족한 편이다. 특히 마을단위에 적합한 제3공간과 이곳에서 운영될 참여프로그램, 서비스품질을 관리할 체계적인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 급증하게 될 1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체의 소통문화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제3의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하지 않는 한 1인가구의 삶의 질은 쉽게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社 說

조환익 한전 사장 연임, 지역 발전 기대 크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의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지역주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수장으로 그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본격화해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조 사장의 연임은 우선 탁월한 경영 성과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취임 후인 지난 2013년 6년 만에 한전을 흑자로 전환시켰고 글로벌 전력회사 중 유일하게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AA’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 차익 등을 포함해 1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국내외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나주 혁신도시로 한전 본사를 옮긴 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등 지역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오는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 특화도시로 만들면 혁신도시는 물론 미래 광주·전남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에너지밸리에 77개 기업을 유치했고 올해 말까지 100개를 끌어온다는 목표로 뛰고 있다. 최근엔 배후 산단인 나주혁신산단도 준공되면서 에너지밸리는 본궤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조 사장이 계속 한전을 이끌 수 있게 됐으니 지역민들이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보다 한전을 속속들이 아는 그는 그간 뛰어난 경영 수완을 발휘해 온 터여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새 임기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 보존이 가능해질 것이다. 실제 무안 갯벌 탐방객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09년부터 2014년에 5배 이상, 신안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각각 늘었다.

생태계의 보고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니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이 개발 여파로 인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남의 갯벌 면적은 지난 1987년 1179.1km에서 2013년 1044.4km로 줄었다. 지난 26년간 134.7km가 사라진 것인데 광주시 북구 전체 면적(120.3km)보다 넓은 갯벌이 없어진 셈이다. 갯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매립이나 연륙·연도고 건설 그리고 방파제 설치 등 개발로 인한 것이다.

갯벌이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그나마 남아 있는 갯벌도 그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전남 갯벌의 47.3%를 차지하고 있는 무안·신안의 경우 갯벌 표면이 딱딱해지고 굴이 깊어지면서 낙지·장동어·칠게 등 어족자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 전남도가 갯벌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인 무안 신안 갯벌의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이로 인해 각종 행위가 제한될 것을 염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

문이다. 갯벌 인근 주민들은 대체로 국립공원 지정에는 찬성하지만 특별한 행위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갯벌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 투자와 전문기관 관리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 보존이 가능해질 것이다. 실제 무안 갯벌 탐방객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09년부터 2014년에 5배 이상, 신안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각각 늘었다.

전남도는 오는 5월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보고를 할 방침이다. 갯벌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서는 국립공원 지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각종 규제 로 제기된 민원을 면밀히 살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규제로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자수성가한 부자에게 성공 스토리가 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 지방의 영어강사였지만 단돈 7만 원으로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라리바를 창업해 세계 최고로 IT기업으로 커졌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공통점은 도전을 즐기고 통근 기부를 한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끊임 없는 도전을 통해 세계 8위의 부자가 됐지만 자신과 부인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 99%(시가 52조 원)를 생전에 기부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자수성가형 부자

기로 해 화제가 됐다. 연초부터 부자와 관련된 우울한 뉴스와 따뜻한 뉴스가 지면을

사건이 전부였다. 자수성가형 부자에게 세계 400대 부자 기업 A&P 애플도어 찰스 롱바텀 회장을 만났지만 설득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 정 회장이 생각해 낸 것이 주머니 속에 있던 한국 지폐였다. 그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500원 짜리 지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설명한다. “영국이 배를 만든 것은 1800년대인데 한국은 이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이렇게 설득한 끝에 바르레이즈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공통점은 도전을 즐기고 통근 기부를 한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끊임 없는 도전을 통해 세계 8위의 부자가 됐지만 자신과 부인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 99%(시가 52조 원)를 생전에 기부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연초부터 부자와 관련된 우울한 뉴스와 따뜻한 뉴스가 지면을 장식했다. 블룸버그가 세계 400대 부자들을 조사한 결과 65%가 자수성가형이었지만 한국은 순위에서 포함된 5명이 모두 상속형 부자인 재벌 2·3세였다. 400대 부자 중 일본은 100%, 중국은 97%가 자수성가형이 아니니 우울할까? 아니다.

알라리바 마윈 회장은 162cm의 작은 키에 외모도 볼품없지만 중국 최고의 부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